

■ 한국 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와 쿠바혁명

김기현

우리는 쿠바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쿠바는 인구수(1,126만, 2007년 통계)로 라틴아메리카 33개국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진 나라이다. 그러나 쿠바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어떤 국가에 못지않다. 쿠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는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해당 국가 검색 시 뜨는 단행본, 학위논문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자료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검색에 의한 자료임으로 해당국가가 포함된 모든 연구 자료들이 검색된다. 따라서 <표>를 통해 해당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단행본에 있어서 쿠바 관련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에 이어 7번째이다. 국가의 규모도 크지 않고, 아스텍이나 잉카와 같은 고대문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위논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있어서 쿠바가 차지하는 비중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어 5번째로 높다. 그것은 학진 등재지 논문 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술적 측면에서 우리는 쿠바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료는 쿠바가 라틴아메리카의 3대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칠



〈표〉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대한 국내 연구의 비중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학진 등재지)	인구수 (2007년)
브라질	1,126	575	1,197 (101)	1억 8,000만
멕시코	1,342	692	1,083 (128)	1억 326만
콜롬비아	725	111	176 (15)	4,299만
아르헨티나	609	266	509 (45)	3,953만
베네수엘라	264	23	161 (10)	2,765만
페루	508	120	222 (15)	2,709만
칠레	903	319	552 (68)	1,659만
과테말라	241	37	71 (9)	1,335만
에콰도르	127	16	49 (2)	1,334만
쿠바	293	124	300 (36)	1,126만

자료: 국회 전자도서관(www.nanet.go.kr)

레를 제외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국내 학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가 규모도 크지 않고, 경제 교류도 많지 않으며, 유명한 고대문명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가 쿠바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잘 알려진 대로 쿠바혁명이 있기 때문이다.

쿠바혁명과 국내 지역연구

쿠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떤 형태로든 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쿠바혁명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쿠바혁명 직후인 1960년대에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주로 혁명의 본질 파악에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쿠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육군본부 정훈감실,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 해군본부 정훈감실, 치안본부 부설 내외문제연구소 등 주로 정부와 군 등 안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당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었던 쿠바혁명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¹⁾

물론 진보계열도 당연히 쿠바혁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직접 연구를 하기보다는 외국저술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사상계》와 같은 대표적인 민족주의 잡지는 드레이퍼(Theodore Draper)의 「큐바의 신판공산주의자들: 큐바의 권력 투쟁」(1962년 11월호), 「암운 속을 헤매는 쿠바: 호노선과 모노

1)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이들은 쿠바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기보다 오히려 ‘사태’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했다는 점이다.



테오도어 드레이퍼의 쿠바혁명 글을 소개한 《사상계》. 왼쪽은 테오도어 드레이퍼

선 사이의 카스트로」(1964년 1월호) 등을 통해 쿠바 혁명을 국내에 소개했다.

1970년대 쿠바혁명에 대한 관심은 주로 냉전 하에서 제3세계 노선의 대표 주자로서 쿠바 모델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내외문제연구소나 육군대학과 같이 안보 관련 연구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연구는 대개 쿠바혁명의 변화 과정을 살피면서, 쿠바혁명의 제3세계 노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을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쿠바혁명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속이론의 대표적 이론가 밤비라(Vania Bambirra)의 『쿠바혁명의 해석』과 같은 책이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쿠바혁명에 대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갈증을 달래주기도 하였다.

1980년대는 국내에서 쿠바혁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상적 자유화의 분위기를 타고 서구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한국사회를 분석하고자 하는 학문적 자립의 흐름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이론이 수입되고, 제3세계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쿠바혁명은 보편적인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쿠바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접근을 시도한 곳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였다. 그들은 제3세계 연구시리즈의 일환으로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경남대학 출판부, 1987)에서 베트남, 탄자니아, 니카라과와 함께 쿠바혁명 사례를 소개했다.

60년대, 70년대 쿠바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주로 안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대학과 같이 순수한 학문적 연구기관들이 쿠바혁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시기 쿠바연구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염홍철, 민만식과 같은 종속이론이나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이 나타나 쿠바혁명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보다 더해 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환경에서 1981년을 기점으로 쿠바혁명에 대한 학위논문들이 줄을 이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미 언급한 밤비라를 비롯하여, 밀스(C. Wright Mills)의 『들어라 양키들아: 큐바의 혁명』 (백산서당, 1985)이나 드브레이(Regis Debray)의 『혁명 중의 혁명』 (석탑, 1987)과 같은 쿠바혁명에 관한 전문적 저술들이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제3세계 사회주의’로서 쿠바 사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용적 차원에서 시장 다각화를 위한 쿠바와의 경제교류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주체도 과거 안보 성격의 국가 연구기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교부,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경제 관련 기관들로 옮겨갔다. 학위논문도 혁명의 변화 과정, 쿠바의 대외정책, 미사일 위기 등으로 다각화되었으며, 특히 세종연구소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와의 비교연구 차원에서 쿠바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 쿠바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쿠바 사회주의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집중된다.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달용이 「탈냉전 시대의 쿠바」 (《한국라틴아메리카 논총》 5호, 1992)를 발표했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제3세계 연구시리즈 6호로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나남, 1992)라는 제목 하

에 김두진의 「쿠바 사회주의 발전과 페레스토로이카 이후의 선택」이라는 연구논문을 출판했다. 게다가 제3세계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내 정치학계의 관심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사회변혁 실험인 쿠바와 니카라과에 대한 전문적인 저술로 이범준, 민만식, 이준형, 방영준, 서병훈, 정진영, 김병국 공저의 『사회주의 실험: 쿠바와 니카라과』(인간사랑, 1992)가 이 시기에 출판되기도 했다. 이 시기 쿠바혁명에 대한 연구가 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전문가들보다는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는 일단의 정치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은 또한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쿠바혁명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정치경제나 외교적 차원을 넘어 문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출발은 《외국문학》 46호(1996/2)의 쿠바문학 특집으로서 여기에는 라틴아메리카 문학 전문가들인 서성철의 「쿠바, 두 세계의 만남」, 김홍근의 「쿠바의 신음유시 운동」, 고영일의 「쿠바에서의 혁명과 문학」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2000년대 쿠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다각화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2000년대에 쿠바혁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특징은 다각화이다. 2000년 12월에 발간된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현 라틴아메리카연구소: SNUILAS)의 논문집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1호는 쿠바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쿠바문화의 기원과 쿠바문학」(신정환), 「관광산업의 진출을 통해서 본 쿠바의 개방정책」(곽재성), 「쿠바의 인적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이계우), 「국가로서의 여성: 혁명 후 쿠바영화에서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임호준) 등의 글들은 정치, 경제, 문

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혁명 후 쿠바사회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체 게바라 관련 영화와 자서전으로 인한 체 게바라의 세계적 붐이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그것이 쿠바혁명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체 게바라는 물론이고 피델 카스트로와 쿠바혁명에 대한 서적들의 출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 가운데 진보진영들은 쿠바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했던 유기농 농업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하면서 또한 쿠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쿠바와의 국교 수립이 논의되고 또 나아가 카스트로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학계의 관심은 무엇보다 포스트 카스트로 체제에 집중되었다. 연구를 주도한 그룹은 1990년대의 정치학자 그룹과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전문가들로서 필자를 비롯해, 곽재성, 김달관, 강경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주로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의 학술지인 《라틴아메리카 연구》를 통해 그들의 연구 성과물들을 발표하는데 그중 「1990년대 이후 쿠바의 개혁과 대외개방」(15권 2호, 2002), 「미국의 대 쿠바 정책: 변화와 전망」(17권 2호, 2004), 「쿠바의 딜레마: 이상과 현실」(17권 3호, 2004) 등이 있다.

우리는 쿠바혁명을 어떻게 보는가?

1961년 쿠바혁명과 관련하여 나온 국내 최초의 단행본에서(문형선, 『혁명과 경제』, 경향신문사) 본 쿠바혁명은 미국 달러의 지배와 독재와 부패 등에 맞서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진 혁명으로 그려지고 있다. 물론 혁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농지개혁과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기

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자는 쿠바혁명을 상당히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 후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쿠바혁명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주로 국가 안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그를 보는 시각도 매우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시기의 쿠바연구는 주로 반(反)바티스타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시작된 쿠바혁명이 공산주의적 독재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쿠바의 국제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립과 소련에의 접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당시 합동통신 외신부장인 김만기는 1962년 《신사조》에 발표한 「큐바 혁명과 오늘」이라는 글에서 심지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카스트로의 큐바 공산혁명이 이미 실패했고 카스트로가 큐바 국민의 민심에서 완전히 이탈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되어 있다. (중략) 카스트로의 큐바 혁명은 미국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반성할 기회를 주었다는 데서 유일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렇듯 1960년대 쿠바를 보는 국내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도 쿠바혁명을 보는 이런 부정적 시각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이 시기에는 쿠바혁명이 제3세계 노선으로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우려가 쿠바연구의 초점이 된다. 《자유아카데미 논총》 8호(1978년 11월)에 발표된 고충석의 「쿠바 혁명 모델과 그 적용가능성」에서 저자는 쿠바혁명이 중간계급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민족민주주의” 혁명으로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육군대학의 권영철은 《군사평론》 161호(1974년 6월)에 실린 「쿠바혁명의 전개과정」이라는 글에서 쿠바혁명은 모택동의 유격 전략전술을 쿠바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서 부패한 정권이라는 쿠바 자체의 취약성이 혁명의 주요 성공 이유였다고 분석하면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쿠바혁명과 같은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내부적 취약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1970년대 쿠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대부분 냉전시대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쿠바혁명이 다른 제3세계 국가로 확산하는 데에 대한 경계 그 이상은 아니었다.

쿠바혁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1980년대에 들어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그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쿠바혁명에 대한 국내 연구의 주체가 주로 안보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학계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세계주의와 종속이론의 붐에서 시작된 쿠바에 대한 학계의 시각도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쿠바혁명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간섭에 대한 자립 그리고 국내적으로 매판적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함으로써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선택 가능한 하나의 이상형으로 비쳐진다는 극단적인 지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의 주류적 시각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

염홍철은 앞서 언급한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1987)에 포함된 그의 글에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쿠바는 미국으로부터의 종속 탈피에는 성공했지만 소련에 재종속되었고, 사회주의 체제에 편입되었지만 식민지시대 이래 쿠바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정되어 온 설탕의 단일경작제도의 개선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쿠바혁명이 미국으로부터의 종속구조를 탈피하고 민족해방을 성취했다는 종속이론적 시각에 대해 쿠바의 소련에 대한 재종속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을 가한다. 민만식의 시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는 외교안보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쿠바의 혁명 수출 전략」이라는 글에서 쿠바혁명이 분배

와 교육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통치제도의 민주적 참여의 문제, 경제의 효율성 문제, 설탕의존적 경제구조, 대소의존도의 심화, 전체주의적 가치관의 형성에서 오는 창의력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1990년대 이후 쿠바혁명에 대한 분석은 그에 대한 평가를 지나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붕괴 이후 쿠바 공산주의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그와 관련하여 김두진(1992)은 1980년대와 같은 맥락에서 쿠바 사회주의의 종속적 발전을 비판하면서 소련과 동구의 체제변혁은 “미국이든 소련이든 간에 역사적으로 하나의 강대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대가가 무엇인가라는 공통된 인식과 함께, 카스트로로 하여금 쿠바의 발전전략을 재고케 하는 또 하나의 계기를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최악의 경우 카스트로의 와해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육사의 최상진은 그의 저서 『카스트로의 장래-북한 체제에 대한 시사점-』 (세종연구소, 1996)을 통해 쿠바와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두 체제가 공히 경제 파탄의 위기를 맞이하여 체제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쿠바의 경우 미국의 봉쇄정책이 카스트로의 목을 조이고 있지만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캐나다, 스페인, 영국, 멕시코 등 서구제국이 또 한편에서 수혈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더불어 다수의 쿠바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뺏속 깊이 체험하면서 카스트로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대 쿠바 봉쇄일변도에서 끌어안기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카스트로 체제의 붕괴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한다. 한편 김병국(1992)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

바에 변화의 조짐은 미미하고, 정체의 모순과 구조만이 지속될 뿐이며, 쿠바 공산정권은 여전히 망설이면서 정신혁명과 대체자원의 탐색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쿠바혁명에 대한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범준(1992)과 같이 쿠바혁명을 “스페인과 미국의 제국주의가 파생시킨 기형적인 경제구조 및 정치사회적 모순과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독특한 쿠바 민족주의의 형성, 카스트로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탄생, 그리고 독재를 거부하고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였던 대중의 지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긍정적 시각도 엄연히 한 쪽에 존재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듯 1990년대에 쿠바혁명을 보는 국내의 시각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였고,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였다.

2000년에도 쿠바 혁명체제를 보는 긍정적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생존을 위해 선택한 쿠바의 유기농혁명은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한다. 한국농어촌사회 연구소 소장인 권영근은 《농민과 사회》 46호(2007년 가을)에 실린 그의 글 「쿠바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서 쿠바농업이 경제붕쇄와 석유수입중단 등으로 농자재의 부족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쿠바농업의 농업-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세계화가 초래하는 자연생태계와 환경의 파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지역산업과 경제의 침체 및 해체를 막고 지역내 물질순환, 지역자급, 지역자립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탈석유시대를 향한 식량자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쿠바의 유기농혁명은 지역경제가 번영하는 중심부와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연결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

한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쿠바혁명을 통해 나름대로 성공한 공산주의 모델을 기대한 것은 크나큰 착각이며, 비록 빈부차가 줄었을지언정 국민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쿠바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이후에 쿠바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 혁명체제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쿠바의 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일부는 미국의 대 쿠바 봉쇄정책을 쿠바의 경제적 어려움의 주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미국은 하루 빨리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금년은 쿠바혁명이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쿠바혁명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우리의 쿠바에 대한 관심도 우리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최근에는 쿠바와의 수교를 목표로 하면서 쿠바 혁명체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쿠바혁명에 대한 연구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김기현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의 대쿠바 정책: 변화와 전망」, 「내부적 요인으로 본 쿠바의 정치변동 전망: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